경북 **사회** 소식

돈 되는 특화작목이 뜬다!

경북도, 시범사업 적극 추진

경상북도는 올해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도내 19개소의 지역특화시범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사업'은 농촌 현장에서 도출되는 아이디어 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 소득 작목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시켜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육성하는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영덕, 울진 등 동해안지구 해방풍 사업 ▲성주 아스파라거스 ▲상주 햇순나물 ▲포항 장기 산딸기 등을 도내 120개소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19개소를 육성하고 앞으로 매년 20여개소 이상을 발굴해 2020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화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릅, 아스파라거스, 해방풍 등 건강 채소가 인기를 끌고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송 토종두릅' 재배는 올해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토종두릅 15종을 수집해 재배 연구한 결과 맛과 향이 우수한 '약향두릅'을 선발하고,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총 8농가가 참여해 청송약향두릅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올해까지 10ha에 약향두릅을 재배하고 있다

'약향두릅'은 기존의 두릅보다 맛과 향이 좋은 특징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벌써 생산 전량을 서울가락시장 등 고급시장에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달간 수확되며 올해 약 7톤 정도 생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가격도 kg당 25,000원 이상 최고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달 27일 첫 출하한 성주 아스파라거스는 2015년부터 참외 대체작목으로 개발·조성중인 특화시범사업으로 기존 참외하우스를 이용해, 3월부터 조기 수확하는 작형을 개발하고 별고을아스파라거스작목반에서 생산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8톤 정도를 수확해 ㈜미주후레쉬와 kg당 8,000원에 계통출하 계약하고 서울지역 롯데마트와 문양역 로컬푸드에 납품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박소득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해 농가소득 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등 돈이 되는 경북농업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지친 나를 깨우는 힐링, 경북 '템플스테이' '소울스테이'

경북도, 체험형 명품 테마관광상품 육성

경상북도는 관광객으로부터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템플스테이 (Temple-Stay)', '소울스테이(Soul-Stay)' 사업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소울스테이'는 성당과 피정의 집 등에서 바쁜 현대인들이 지친 일상을 벗어나 쉬어갈수 있는 체험형 테마관광상품 이다.

경북도에서 2007년부터 운영한 '템플스테이'는 도내 전통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일상생활과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수행 정신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으로, 기림사(경주), 불국사(경주), 보경사(포항), 도리사(구미), 고운사(의성), 은해사(영천), 자비선사(성주), 장육사(영덕), 축서사(봉화), 용문사(예천) 등 10개 시·군 12개 사찰이 사업에 참여한다.

지난해 ▲선무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경주 골굴사 6천여명 ▲차와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김천 직지사 6천여명 등 4만9천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외국인 참여자도 2013년 6,171명에서 2016년 8,717명으로 41.3% 증가해 경북 템플스테이가 신한류로 정착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각 사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울스테이'는 성당, 피정의 집 등에서 묵상, 봉사 등 수련프로그램과 걷기여행 등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테마상품으로, 갈평피정의 집(포항), 한티 피정의 집(칠곡), 천부성당(울릉) 등 7개 시·군 14개소에서 운영된다.

지난해 ▲천주교 한티성지에서 운영 중인 한티피정의 집 2만8천여명 ▲자원봉사가 주요프로그램인 성주평화계곡피정의 집 1만여명 등 총 12만여명이 참여해 소울스테이가 힐링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들은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융성사업단(054-275-0610) 또는 각 참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템플스테이'와 '소울스테이'의 인기비결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8곳의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으며, 군위의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 칠곡군 한티성지 등 경북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 원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 템플스테이와 소울스테이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경북의 명품 체험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눈부신 봄날의 향연, 안동호반자연휴양림에서 만끽하세요!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객 발길 증가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은 봄기운이 완연한 이때 향긋한 꽃내음과 물향기를 머금은 안동호반자연휴양림에서 힐링을 하려는 이용객의 발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3만 2천여 명이 다녀간 이곳에는 내달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황금휴일을 맞아 휴양림에서 봄을 만끽하려는 이용객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안동호반의 첫 자락에 위치한 휴양림에는 하늘과 맞닿은 듯 맑은 안동댐이 펼쳐져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휴양림 내 전통가옥 초가집에는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아늑한 시골마을의 향수를 느끼게 하며, 산림휴양관으로 향하는 길에는 굽이굽이 마주선 벚나무 터널에서 흩날리는 벚꽃비를 맞을 수 있다.

봄꽃비가 지고 나면 아쉬울 틈새도 없이 자연휴양림과 야생동물 생태공원, 소득식물 생태숲 일원(약 5,000㎡)에 노란 유채 꽃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꽃단장 준비가 한창인 유채는 오는 5월 중순에 눈과 마음이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난달 분양한 휴양림 내 산림텃밭에서 온 가족이 고추와 상추 등 무공해 채소 가꾸기를 통해 어른들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농사체험과 더불어 흙 내음을 실컷 맡는 자연학습의 장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은 맑은 공기와 숲으로 둘러싸여 오롯이 자연을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 재방문하는 이용객이 많다.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9시에 홈페이지(http://huyang.gb.go.kr, 054-840-8265~6)로만 가능하며 주말 이용객이 많으므로 한적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계획이라면 주중에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게다가 주말보다는 주중 요금이 30% 정도 저렴하다.

김완식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장은 "향후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뿐 만 아니라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경상북도는 기능성 약용작물의 산업화 기반 확보 및 고부가 연관 산업 육성의 기초 토대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총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개소 건립 추진으로, 지난해 12월 공모계획 발표후 경북 영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남원시가 참여해 지난 3주간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경북 영천시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경북 영천시는 전국 최대 한약재 유통시장을 품은 한약도시로, 약용작물 유통전문 업체 및 가공 제조업체, 약초종합처리장 등 한방진흥특구내에 약용작물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러한 경쟁력이 '국내 약용작물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해 권역 산업화를 견인'하고자 하는 센터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등 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국내 약용산업은 산업화 기반 미흡으로 단편적 임상시험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효능 입증자료 미비로 소비확대와 국제화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능성 식의약 원료 개발은 고비용 등으로 민간차원의 추진이 어려워 한약제제 등 핵심 산업이 주요국에 비해 영세하다.